10.15686/fkl.2025..64.191 OPEN ACCESS

1930년대 김말봉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이동의 세속화와 도시의 교란

성현경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목차

1 여성 이동의 세속화와 순수통속소설의 출현
2 모빌리티 격차: 성스로운 남성의 비참과 관광 여성의 정치성
3 식민도시의 형성과 교란, 결박된 여성의 이동과 야만의 역설
4 결론을 대신하며-이동과 정주의 젠더 교차

논문에 대해 상세한 심사평과 방향을 일러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세심한 조언 덕분에 논문의 부족함을 다듬을 수 있었다. 남겨진 문제들은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겠다.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30년대 통속작가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김말봉의 소설을 통해 당대 여성의 이동이 정치화되고 있는 식민주의적 조건을 살피고, 여행이 가능했던 여성(들)의 특권적 위치가 남성적 질서에 어떠한 균열을 일으켰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 이동의 대표적 형태인 여행이 서사화되면서 인종, 젠더, 계급의 관계가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는 이동의 지형학을 도시 공간의 젠더적 구성과 교차를 통해 탐색해 볼 수 있었다. 김말봉은 생계(=오이코스) 영역에 결박된 채 돌봄과 감정 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남의 저택으로 이주한 가정교사와 식민도시의 균형과 질서를 야만스럽게 교란하는 유한계급 여성 간의 모빌리티 격차를 통해 통속이라는 서사 양식이 함의할 수 있는 정치성의 일단을 실험했다. 또한 그 실험의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가부장제를 내면화한 남성 사회의 질서라는 것이 계급의식과 젠더 범주 간의 긴장만이 아니라, 민족 문제와 상호 교차하며 형성된 허위의식과 다름없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이는 식민지기 여성의 이동을 문화 향유의 측면에서 다루어왔던 오랜 관행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의식 속에서 속된 행위로 이미지화되어 있었는지, 역으로 그렇게 세속화된 여성들의 여행이 남성들의 사회적 권위를 실추시키게 할 시대의 위기로 감지되고 있었던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들의 이동과 여행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위가 낮은 주체들의 이동이 관리되어야 했다. 그런데 1930년대의 조선에서는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특권계층의 문화적 향유가 계급과 젠더, 인종의 지평에서 작동하는 이중성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 이중성이 야기한 심미적 아이러니의 사회적 성격이 김말봉의 소설을 통해 표상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문핵심어: 김말봉, 여성 이동, 모빌리티, 통속소설, 식민도시, 경성, 세속화, 1930년대

1 여성 이동의 세속화와 순수통속소설의 출현

김말봉은 1932년『중앙일보』신춘문예에 단편「망명녀」로 당선된 이래, 데뷔부터 통속작가의 적통(嫡統)으로서 남다른 입지를 누리고 있었다. 식민지기 김말봉은 등단작 발표 이후「고행」(1935)과「편지」(1937) 등의 단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녀를 조선 문단의 스타로 만든 것은 신문연재 소설인『밀림』(1935)과『찔레꽃』(1937)이었다. 즉 단편보다는 장편으로 주목받은 거의 유일한 여성 작가였다고 할 것이다. 통속작가로서 김말봉의 위상은 그야말로 '유니크'(임화) 했다. 김말봉의 작품들은 예술의 타락과 상업성에 대한 단순한 비판만을 양산하지 않았다. 가령, 이선희는 김말봉 소설만의 "매력"은 "재미"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작품이 "몹시 통속적이고 저급해서 그런 줄 알지만", 사실 "우리의 장편소설가제씨는 언제나 입으로 무시하는 이 재미를 그들 소설에 올가넣으려고 은근히 뒤로 음모(陰謀)함에도 욕심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므로 김말봉은 장편소설계에 존재하는 "가위(可謂) 여왕격이요 남성작가들이 함부로 넘겨다보지 못할 경지(境地)"에 이르렀다며 고평하였다. 통속소설이라는 것이 "현실을 무시해가면서 연출되는 신파"로 얼마의 "불쾌"를 가져올 수 있지만, 김말봉의 독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감동과 교훈"[1]을 호소받고 있다는 것이다. 백철 역시, 김말봉이 통속작가라는 말에 기분을 상하기보다는 쾌히 그것을 자처할 분이며, 작품의 통속성에 대해 자신의 비본의를 변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통속소설을 본의로 천직으로 쓴 것임을 자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철두철미 통속소설가, 순수한 통속소설가라는 곳에 우리 문단에서 김말봉의 독특한 존재"[2]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선 문단에서 통속작가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작품들이 애초부터 당대 동료 문인들의 항구적인 의심 속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김말봉의 작품은 항시 "노골적이오 비미감적인 문구"로 점철되어 있으며, 대체 "예

1 이선희,「김말봉씨대저 "찔레꽃" 평」,『조선일보』, 1938. 11. 9.
2 백철,「뿍 레뷰, 김말봉씨저 찔레꽃」,『동아일보』, 1938. 11. 29.

술적 훈향(薰香)이 표묘(縹緲)하도록 표현할 수 없는지"[3]에 대해 몰매를 맞았던 것이다. "소설에 함부로 국어를 쓰지 말 것이며, 부득이 쓰는 경우라도 그것이 참말의 국어이려니 하는 생각을 빼라"[4]는 언어능력에 대한 가히 모욕적인 평을 듣기도 했다. 특히나 동시대 여성 작가인 박화성과 비교되면서 평가절하되기 일쑤였다. 박화성이 "실로 무시되어진 하층민의 생활, 생활고 감정, 그 속에서 자라는 슬픈 정경"을 담으려고 노력함으로써 "현현되기 어려운 열정을 작가적으로 파악하려고 애쓰는데" 반해, 김말봉은 "아무런 진실한 감정도 문학성도 현학적 스토리도 찾을 수 없는 작가"[5]라는 것이었다. 박화성이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의 하층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문학적 지평 위에 '생활세계'를 올려놓은 것과 달리, 김말봉의 세계 인식은 관념적인 희화(戱畫)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에 가까웠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여성 지식인 박화성은 젠더 의식 또한 투철했으며, 이것을 자신의 또 다른 '주의'로써 내세운 작가이기도 했다. "나의 노력하는 바는 남자의 부속물로서 일생을 지내야만 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 여성이나마 자식으로서 안해로서 어머니로서의 도리와 천직을 다하면서도 남자의 구속과 가정의 예속에서 완전이 벗어나 또한 한 개의 인간으로서 그의 사상과 일을 위하야 굳게 얽힌 정理와 萬難을 돌파하고 끝까지 용맹스럽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여성諸氏에게 보이려는 것"[6]이라는 창작관을 표방하였던 것이다. 그에 비해, 김말봉의 젠더 의식은 표면적으로는 다소 모호하며, 오히려 남성적 세계 인식을 내면화한 의제 남성의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

> 직업부인이 이따금씩 진정한 직업부인의 의미를 오래 계속치 못하고 짧은 시일에 그 방향을 □한다는 것을 들었다. 또 보았다. 나는 그 사람은 대개로 두뇌가 예민하고 동시에 여성 중에도 가장 그 성(性)을 보존하는

3 이원조, 「칠월창작평」, 『조선일보』, 1935. 8. 2.
4 김문집, 「김말봉론」, 『신가정』, 1936. 8.
5 임순득, 「여류작가 재인식론」, 『조선일보』, 1938. 1. 30.
6 박화성·김말봉 외, 「十萬 愛讀者에게 보내는 作家의 便紙」, 『삼천리』 제7권 10호, 1935. 11.

데 충실한 사람이라고 본다. 그 까닭은 여자가 직업을 가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남성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성이라는 여자 또는 남자의 존재를 안다. 직업 앞에서는 □□한 감정이라든지 민감한 의식은 불필요하다. 일을 위하여서는 □면도 하여야 되고 때로는 남자다운 강한 의지와 굵직한 선의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 비현실적인 조선 사람으로서 또한 그 중에서도 규중 깊은 방에서 나서 자라고 죽던 조선부인들 임에 일시적 호기심이나 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업부인이 되었다 하자. 이 엄숙한 현실의 채찍 아래서 대개는 비명을 낼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질곡을 벗어나 도망해버리는 그 이유도 겨우 깨달았다.[7]

진정한 직업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다운 "강한 의지"와 "굵직한 선의 활동"이 필요하기에 여자가 직업을 가지게 되면 어느 정도 "남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현실적 조선사람"으로서 조선 부인들이 "일시적 호기심"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부인이 된다고 해도, "엄숙한 현실의 채찍 아래서는 얼마 못 버틴다"는 김말봉의 판단에는 여기자로서 사회생활을 해온 자신의 경험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감정적 동물로, 남성은 이성적 존재로 전제되어 있다. 직업부인의 직업의식 확보를 남성화에서 찾는 위와 같은 논리는 근대적 공/사 구분에 기초한 젠더 편향의 전형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김말봉은 조금 뒤 다른 글에서 "약한 자여 너의 이름은 여자이다"라고 말한 세익스피어의 말을 변용하여 "남자는 약하다"는 결론으로 나아간 바 있다. "대도회(大都會)의 좁은 골목에서 누렇게 떠가는 젊은 노동자 무리", "흐느적거리는 양복쟁이들", 즉 "현대 사회조직의 모순으로부터 오는 살인적 불경기가 남자의 몸에서 정력을 뽑아 버렸다"[8]는 판단이었다.

조선에서 직업 남성이 남성적 의지를 소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이와 같은 판단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입지는 어떻게 (재)파악되고 있었을까? 식민지 조선의

7 김말봉, 「여기자 생활의 감상」, 『조선지광』, 1930. 1.

8 김말봉, 「남성은 약하다」, 『별건곤』 제31호, 1930. 8.

경제불황이 남성을 여성화하고 "굵직한 선의 활동"을 차단하여, 이제 여성이 중성적 존재로서 사회로 진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해 버렸다는 인식이 내재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규중 깊은 방"의 여성이 사회로의 이동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그리하여 존재 전이의 사회적 요청을 마주했다면 말이다. 그러하다면 이는 "피투성이 되어 쓰러지는 선각자 직업여성"의 출현을 전 조선이 예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김말봉은 같은 글에서 남성의 '야심' 혹은 '배짱'과 그로 인한 '횡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때의 환경이란 다름 아닌, "빵을 얻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삶과 존재의 존엄보다 오로지 "빵"에 매달려야만 하는 생활의 궁핍함이 남성과 여성에 관한 규범적 구분을 해체(=중성화)한다는 것이었다.

김말봉의 '통속'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녀의 통속소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피식민자의 생활세계 전반에 대한 곤경으로 수렴되어 버리고 만 조선의 속된 현실을 미적으로 서사화한 결과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근대소설에 관한 오랜 명제의 세속적 버전으로써 김말봉 소설의 존재론이 성립하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루시앙 골드만은 근대사회에서 "진정한 가치는 내재적인 차원으로 끌려들어 감으로써 자명한 현실로는 사라져 버린다"[9]고 논의한 바 있다. 김말봉은 바로 이 감추어진 소설적 진실을 여성과 남성 간의 숨겨진 이동의 격차를 통해 표상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때의 격차란 주인공들의 계급적 위치와 젠더 범주 간의 긴장과 알력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었고, 그들의 교차된 이동이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생산하고 횡단하며 복잡한 이야기는 전개되기 시작한다. 즉 세속적인 여성의 이동이 남성의 공적 활동과 매개될 때 발생하는 파열의 연쇄를 문학적 사건으로 취하는 서사 양식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김말봉의 소설은 속된 사회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생활 전선으로 내몰린 여성들의 이동을 세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동이 남성적 질서에 균열

9 루시앙 골드만,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92, 20쪽.

을 낼 때 벌어지는 참극을 묘사하고 있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간의 계급적 격차는 젠더적인 역전을 야기하고, 그러한 위치의 교환 속에서 재구성·재배치되는 도시 공간의 지형학이 있다는 것이다. 김말봉 통속소설의 '유니크함'은 여기에 있다.

> 진실로 김말봉씨의 출세는 돌연(突然)적이고 대담(大膽)하였다. 그의 소설 가운데 현대조선소설의 깊은 고민이나 작가들의 심혈을 다한 오뇌 같은 것은 하나도 돌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씨는 자기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현대소설의 깊은 모순인 성격과 환경의 불일치를 통일하였다. 이 점인 통속적 의미에서 일망정 김씨를 좌우간 유니크한 존재를 만들게 한 것이다. 그것은 여태까지 조선서 일즉이 그 전례를 보지 못한 순통속소설 상업문학의 길의 확립이고 그 방향에의 매진이다.[10]

임화는 카프 해산 이후, 1930년대 중후반 예술소설의 위기, 그러니까 경향소설이나 순문학계의 소설이 성격과 환경의 통일을 마련할 조건이 불비(不備)한 까닭에 소설들이 '세태묘사'나 '심리성찰'로 분열되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선문단이 이 분열을 정상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과제에 마주해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여 예술소설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두운 주관과 내성세계에의 깊은 침잠"과 "현실생활과 시정(市井)세계에의 지향없는 편력의 여행"[11]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던 작가들과 달리, 김말봉은 현대소설의 깊은 모순인 성격과 환경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말봉의 이러한 일치는 어떠한 사유의 지평에서 가능했던 것일까?

물론 김말봉의 장편은 신문연재 소설이었고, 신문이라는 매체가 상업주의로 경사되고 있었던 시대적 추세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의 작업이 성격과 환경의 결렬로써 표현되는 소설의 내적 위기를 통속화의 방법으로 미봉하는 것에 불과했다면, 결코 '유니크한 존재'로 평가받지 못했을 것이다.

---

10 임화, 「속문학의 대두와 예술문학의 비극(三)」, 『동아일보』, 1938. 11. 22.
11 임화, 「속문학의 대두와 예술문학의 비극(五)」, 『동아일보』, 1938. 11. 25.

오히려 김말봉은 “내성세계에 깊이 침잠”할 수 있는 정주할 권리의 특권적인 위치를 계급 모순의 세계상을 통해 표현하고, “시정세계에의 지향없는 편력”을 남성과 여성에 할당된 규범적 역할의 반전 속에서 묘사하는 서사 전략을 취함으로써 순수통속소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12] 이러한 김말봉의 성공한 통속소설에 비할 때,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실패한 통속소설은 통속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퇴색한 순수문학’에 가까웠다.

요컨대 김말봉은 자본주의화되고,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분히 사적 의미들로 점철된 여성의 세속화된 이동을 통해 남성 ‘주의자’의 공적 활동과 모순을 역으로 드러냄으로써 여성 이동이 함의한 아래로부터의 정치성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때 젠더적 규범과 계급의 분할을 가로지르는 여성의 이동은 도시를 교란시키는 원인으로 표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13] 도시 교

12 참고로 임화는 김말봉의 소설 세계는 통속소설의 계보 속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령 조선문단에서 통속소설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최독견조차 당대의 문학적 조류나 사조, 시대정신과 결부되어 있었던 데 반해, 김말봉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었다. (임화, 「속문학의 대두와 예술문학의 비극(二)」, 『동아일보』, 1938. 11. 18)
한편, 김말봉은 자기 소설의 예술성과 통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예술성, 통속성의 조화! 이런 것을 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심리묘사같은 것이나 사건의 진전에 있어서 좀 더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쓰고 싶어도 신문소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연히 흥미 본위로 『지루하지 않게』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작품은 순수문학의 궤도를 버서나게 되는 모양인가 합니다. 내가 쓰는 密林이 어늬 주의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자연주의만은 아닌 듯합니다.” 김말봉, 「長篇作家會議」, 『삼천리』 제8권 11호, 1936. 11.

13 본 논문에서 ‘이동’이란 ‘모빌리티(mobility)’라는 개념의 뜻 그대로 이동의 조건과 수단, 사회적 제약을 포괄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제한들과 갈등하고 투쟁하며 형성되는 여성 주체성의 유동하는 범주 그 자체를 뜻한다. 그런 만큼 여성 ‘운동(movement)’의 의미가 포개어져 있으며, 여성을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부동성(immobility)의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두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의 여성이란 개념 역시 문화적 범주이며, 남녀라는 이항대립항의 젠더 중 한 측면을 구성하는 존재의 형식을 말한다. 주디스 버틀러 등이 논의한 바와 같이 여성이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규범화되는 범주라는 것이다. 여성의 이동은 근원적으로 여성이라는 범주의 존재론적 조건과 근대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과 다름없었다. 따라서 식민지기 여성의 이동(im_mobility/movement)은 그러한 움직임을 한계 짓고 있던 시대의 조건들과 대결한 사회적 투쟁이

란의 재현 양상과 서사화 방법 및 사회적 성격을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김말봉 소설에서 재현되는 여성 이동의 양상을 통해 이동의 식민지적 체제의 역사와 그 젠더적 의미를 파악해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미미 셸러는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식민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모빌리티 관리의 원칙이며,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련의 변화하는 규칙과 위계에 따라 인구를 동원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14] 불균등한 이동성/부동성의 식민지적이면서도 젠더적인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식민통치의 공간 및 교통 정의, 모빌리티 관리 원칙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김말봉 통속소설의 미학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15]

자, 여성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필요와 경우에 따라 '이동'과 '모빌리티'라는 표기를 병행하고자 한다.

14 미미 셸러, 최영석 역, 『모빌리티 정의-왜 이동의 정치학인가?』, 앨피, 2019, 118쪽.

15 김말봉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는 해방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식민지기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축적된 식민지기 김말봉 소설에 관한 연구는 김말봉 특유의 대중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편소설인 『찔레꽃』과 『밀림』에 각각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관련 논의는 대체로 김말봉의 대중소설 창작방법론과 연애의 양상, 그리고 작품이 함의하고 있는 사상적 가능성 및 여성 문제 등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성취를 이어받되, 식민지기 발표된 김말봉 대표 소설들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세속화된 여성 이동의 정치학을 살펴봄으로써 1930년대 여성의 이동이 문화 향유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던 오랜 관행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의식 속에서 속된 행위로 이미지화되어 있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세속화된 여성들의 여행이 남성들의 사회적 권위를 실추시키게 할 시대의 위기로 감지되고 있었던 양상 역시 함께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민지기 김말봉 소설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서영채, 「19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과 그 의미-김말봉의 『찔레꽃』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 배상미,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 『민족문학사연구』 제58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장두영,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9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서정자,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김말봉의 『밀림』과 『찔레꽃』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서정자, 「김말봉의 『밀림』 재론-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박선희, 「『찔레꽃』에 나타난 스포츠와 연애」, 『우리말글』 제59집, 우리말글학회, 2013; 허예슬, 「1930년대 대중소설에 나

2 모빌리티 격차: 성스러운 남성의 비참과 관광 여성의 정치성

김말봉의 등단작 「망명녀」(1932)는 향후 그녀의 작품 세계 전반을 규정짓게 되는 주요 플롯과 서사적 코드를 내장하고 있는 전범이자 원형에 가까운 작품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기생이 된 여성이 '주의자'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종국에는 그를 대신하여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는 게 서사의 주요 골자이다.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팔아야 하는 타락한 사회, 빚에 발목 잡혀 이동의 자유가 박탈된 속된 여성, 남성주의자로 표상되는 지식의 구원과 그 허위성 등은 훗날 김말봉의 장편에서 반복적으로 변주되거나 확장되는 서사적 자원이고 재료라 할 수 있다.

돈 십 원이 없어서 여학생에서 기생으로 추락한 주인공 순애는 지식인 조력자(선배 언니)에 의해 요정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퇴폐한 생활로부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방황하던 순애를 각성시킨 것에는 주의자 남성을 통해 알게 된 사회주의 사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순애를 '속된 여성'에서 '성스러운 동지'로 비약하게 한 기제는 종교로부터가 아니라, 사상과 지식의 습득 여부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여성을 구속하고 있던 여러 경계와 한계를 초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때 사회주의는 변혁 이념으로써 구체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지식 일반으로 추상화되어 있는데, 그러한 앎조차도 언제나 남성의 전유물로 표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남성이 추상화된 사상을 매개로 여

타난 여성 가정교사 재현 문제-김말봉 〈찔레꽃〉(1937)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56호, 반교어문학회, 2020; 변하연, 「김말봉 소설 속 '성노동자'들」, 『여성문학연구』 제6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진선영, 「김말봉 『밀림』의 역설 연구」, 『이화어문논집』 44, 이화어문학회, 2018; 엄학준, 「김말봉의 『찔레꽃』에 드러난 지식인 노동자의 표상과 그 의미-1930년대 대중소설의 노동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01집(27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강옥희, 「식민지 시기 대중소설에 반영된 서구문화의 수용 양상-김말봉의 『찔레꽃』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진선영, 「인조견을 두른 모럴리스트-김말봉 대중소설 창작방법론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6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안서현, 「젠더, 서사, 지도-김말봉의 초기 장편소설에 대한 '지도 그리기'의 시도」,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회, 2023.

성과 관계한다는 것은 여성의 세속화가 다름 아닌 지식의 결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무지로부터의 구제는 계급 격차의 해소에 대한 감정적 동화로 가능하다는 관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념은 사회적 구조나 경제적 토대에 입각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하게도 구체적인 현실(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망명녀」에서 주의자 윤정섭은 순애가 "피가 나도록 경험의 실감"을 가졌기에 "사랑하는 동지"가 될 수 있다고 결혼을 설득했다.[16] 하지만 순애는 그렇게 확보한 사상의 실현을 꿈꾸며 주의자 남성과 가정을 이루기보다는 망명을 선택한다. 이처럼 여성의 이동 가능성은 언제나 지식인-주의자-남성의 이동과 부동을 경유해서만 확보될 수 있고, 이러한 모빌리티 격차야말로 김말봉 소설의 서사를 추동시키는 배후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는 김말봉의 통속은 이동과 부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문학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전유하여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풍자와 해학, 웃음과 조롱, 우울과 비애를 심미적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미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실제 「망명녀」에서도 사상을 매개로 이어진 연애 감정이 가정이란 정주 공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공간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모빌리티의 격차로부터 매개·형성되고 있었던 젠더 규범에 대한 김말봉 특유의 비틀기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령, 또 다른 초기 단편인 「고행(苦行)」도 마찬가지이다. 이 작품은 가정에서 남편의 퇴근만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전화로부터 시작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인 아내는 이번만큼은 남편이 시간을 내어 온천여행을 하자는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와 자매처럼 지내는 미자와 내연관계였고, 그녀와의 데이트로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아내는 집 안에 틀어박힌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주부로서 아내는 남편의 여가에 따라 그 이동에 제한이 있는 전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오늘도 어김없이 아내보다는 미자의 집에 방문한 남편이 예고도 없이 아내가 그곳으로 찾아오자 비좁은 벽장으로 숨어들게 된다. 이 소설은

16 김말봉, 「망명녀」, 『중앙일보』, 1932.1.1.-1.10.

바로 남편의 벽장에서의 '고행'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 방에는 말소리가 뚝 그치고 고요합니다. 나의 방광은 바야흐로 터질 듯합니다. 그러는데 벽장 속은 시루 속처럼 김이 서리고 후끈거립니다. 나는 차차 숨이 갑갑해 옵니다. 공기가 부족하여지는 까닭이겠지요. (…) 나는 각일각으로 절박하여 오는 아랫배의 고통이나 침끝 같은 빈대 벼룩의 고문보다도 이제는 생사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만 것을 알았습니다. 실탈만 하던 문틈도 없고, 이제는 무서운 질식의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17]

바람난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들킬까봐 벽장 속에 숨어 들어가 하루를 보낸다는 이러한 설정은 남성에 의해 여성의 이동이 제약되었던 상황의 정확한 반전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이라는 범주가 가정이라는 정주 공간에 대한 의식을 전제로 성립해 왔듯이, 남성이라는 범주는 항시 이동 가능성 속에서 구성되어 왔다. 이때 남성 이동의 자유는 집에 틀어박힌 여성의 부동성을 조건으로 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흔히 그림자 노동이라 부르는 재생산 노동의 정태적 특성이 남성의 바깥 활동을 지원해 왔다는 것이다.[18]

하지만 김말봉은 남성의 이동과 여성의 부동을 남편의 외도와 아내의 감시

17 김말봉, 「고행」, 『신가정』, 1935.7.

18 낸시 프레이저는 여성의 돌봄 노동이야말로 자본주의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비경제적인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축을 지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이는 인식의 전환 없이는 살필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자본주의 생산 영역이 의존하고 있는 비경제적 요소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생산 영역을 탐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재생산이란 인간 존재와 사회적 유대를 생산하고 지탱하는 상호작용, 필수재공급, 돌봄 제공의 형태를 뜻하며, 이는 돌봄, 감정노동, 주체화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생산=유급노동'은 남성에게, '재생산=무급노동'은 여성에게 할당되었고, 전자가 공적 활동이라면, 후자는 사적 영역으로 유폐 되어왔다. 따라서 오늘날 자본주의의 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생산-여성-사적 영역의 위기를 사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낸시 프레이저, 장석준 역, 『좌파의 길-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서해문집, 2023, 40-42쪽.

라는 상황적 틀 안에서 변용함으로써 폐쇄된 공간에 갇힌 남성의 '질식'을 묘사한다. 이 한시적인 부동에서조차 '터질 듯한 방광'을 움켜쥐고 '벼룩의 고문'으로 '생사의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는 남성의 허약한 멘탈리티와 신체가 우스꽝스럽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우연한 아내의 '습격'에 '벽장'으로 '피신'한 남성의 행태를 '고행'이라 이름 붙인 것은 작가의 유머러스한 소위(所謂)일 텐데 정작 작품에서는 "그런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아 이상스럽다"[19]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이는 정확한 판단이다. 김말봉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범주가 각기 이동과 부동과 관계를 맺어온 관습을 익살스럽게 비틀고자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 아내의 습격과 감시는 우연적이며, 무의식적이고, 무자각적이었다. 즉 남편과 아내 간에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보의 편차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아내의 무지가 오히려 남성을 겁박(劫縛)하고 있다는 현실의 아이너리컬한 제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이러니란 현실과 현실 묘사 간의 간극이 야기하는 심미적·정서적 이질성을 의미한다. 이 이질성에 대한 감(感)은 때로는 조롱과 웃음으로, 때로는 우울과 냉소를 배태하기도 한다.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여성에 의해 남성의 외도가 고립되고 질식된다는 상황의 변주는 김말봉의 작품 세계가 모빌리티의 젠더적 격차에 대한 비틀린 패러디로부터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비틀림이 야기하는 사회적 제 관계의 재편과 재배치·재구성, 그리고 그 재편의 과정에서 창출되는 역동성과 횡단의 힘으로 다층적 서사가 구축되고 추동된다는 것이 김말봉 소설의 원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이동(im_mobility/movement)으로 장편『밀림』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말봉의 장편소설『밀림』은『동아일보』에 1935년 9월 26일부터 1936년 8월 27일까지 총 233회 연재되다가『동아일보』4차 정간으로 1차 중단되고, 1937년 11월 4일부터 1938년 2월 7일까지 재개되어 총 293회로 전편이 완재된다. 이후 1938년 7월 1일부터 독자의 성원으로 후편이 다시 연재되지만, 같은 해 12월 25일 후편 96회를 끝으로 연재가 다시 중단되어 끝내 미완으로 남았

19 이원조, 앞의 글.

다.[20] 『밀림』이 처음 연재되던 때만 해도 김말봉은 『중외일보』의 여기자로서는 유명했지만[21], 작가로서는 위에서 다룬 단편 2편만을 발표한 신인에 가까웠다. 『밀림』 연재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변영로의 회고에 따르면, "『밀림』의 게재건에 있어 사내당사간부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작자 "김말봉의 실력도 미지수"였지만, 무엇보다 "작품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는 것이다. 특히 학예부장 서항석은 "일단 게재되면 도중에 중단할 수 없으니" 더욱 신중했다고 한다.[22] 신인이었던 김말봉의 실력을 의심할 수는 있었겠지만, 작품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익히 알려졌듯이, 김말봉은 통속작가임을 자임했던 사람이었다. 어느 시대에나 통속성이란 상업적인 목적을 취하기 위해 대중의 무반성적 기대와 흥미에 부합하는 서사 및 콘텐츠의 창안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신문사에서는 김말봉 서사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말봉의 소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배적 가치를 자명한 원리로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변용·변주하거나 왜곡·교란하고, 이것이 때로는 기묘한 방식으로 대중의 생활양식과 불화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미 살펴본 위의 두 단편

20 『밀림』의 정확한 연재 중단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본어로 소설을 쓰는 것이 강제되고 있었던 시국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작가 스스로 집필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밀림』 단행본도 전편만 출간되었다가 후에 전집이 나오면서 후편도 단행본으로 묶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서정자,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형의 창조」,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204쪽.

21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조선의 여기자를 대표하는 3인으로 『동아일보』의 최의순, 『조선일보』의 윤성상, 『중외일보』 의 김말봉이 유명했다. 여기자 김말봉에 대한 당시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김말봉 녀사의 조리잇는 필치에는 중외사회부장 뎡인익군의 가장 경탄하는바이며 때때로 심사가 조흐실 때이면 아릿다운 노래를 을프시어서 드름에 주린 편즙국원들의 마음을 깃브게 한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도 특색의 한아이며 일즉히 악단에 일홈을 날니신 일도 잇서 아시는 분이 매오 만타. 길실한테구 「위선 몸이 튼튼해야 한다」는 「못토」압헤 슬뎨 일인자는 김말봉 녀사이다. 고향에 아기가 잇다 남편이 잇고 가평이 잇스나 그는 뎨일선에 나서서 팔을 것고 활약하는 자미에 모-든 신변의 번루를 대담히 끈어 바렷다. 이 용긔만 가저도 긔자생애에는 큰 미천이 될 것이다." 외돗生, 「東亞·朝鮮·中外 三新聞社 女記者 評判記」, 『별건곤』, 1929. 12.

22 변영로, 「나와 동아의 인연」, 『동아일보』, 1955. 8. 19.

에서처럼 말이다. 『밀림』 역시 그러했다. 다만, 밀림은 독자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퇴색한 순수예술이 아니라, 순수통속소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취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성취는 모빌리티 격차에 대한 계급적·젠더적 규범의 교차로부터 가능했다.

『밀림』은 인천으로 향하는 두 주인공 동섭과 자경의 엇갈린 행보와 이동 및 그 의미에 대해 조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동섭은 인천 축항 공사를 맡은 자본가 집안의 양아들이다. 그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구제와 봉사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인천으로 향하고 있다. 반면, 같은 집안의 외동딸인 자경은 인천의 해수욕장으로 친구들과 휴가를 떠난다. 그녀에게 인천은 철저하게 여가의 공간일 뿐이다. 주지하듯이, 인천은 개항 이래 항만 축조와 철도 공사를 위해 일꾼들이 모였고, 무역과 상업의 발달로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한 노동자의 도시였다. 인천이라는 공간의 역사가 자경의 의식 속에서는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 것이다. 『밀림』보다 조금 앞서 발표된 강경애의 『인간문제』(1934)에서 인천이 하층 여성들에게 계급의식을 깨우치게 한 장소로 묘사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23], 자경의 이러한 몰이해는 '속된 여성'이라는 것이 계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김말봉 특유의 사유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

23 식민지기 인천이 노동자들의 도시로써 형성되었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근대문물이 처음 유입되는 곳이었던 인천은 1910년 이후부터는 일본인이 공장을 세워 직접 생산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1912년에는 애경사가 생겼고, 1917년에는 조선인촌주식회사 설립되었다. 중일전쟁(1937)을 전후해서는 조선 전역이 대륙침략의 병참기지화가 진행되는데, 이때 인천에서는 바다를 매립하여 공장 부지가 마련되었고, 공업용 수도 건설을 하는 등 군수기지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었다. 송현동, 만석동, 화수동 일대를 비롯하여, 용현동, 학익동 일대와 부평에도 군수공장이 세워졌다. 철강, 전기, 제분, 방직, 기계 공장이 조성되면서 동구 일대는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4년 현 동일방직의 전신인 동양방적, 1937년에는 현 두산인프라코어의 전신인 조선기계제작소가 건립되었다. 1940년대에는 현 현대제철의 전신인 조선이연금속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인천은 강경애의 노동소설을 비롯하여, 석정남, 유동우의 노동수기, 방현석, 정화진 등의 작품 세계를 가능하게 한 노동 문학의 산실이 된다. 노동자들의 도시이자, 공업도시로서 형성된 인천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안정윤 외, 『인천 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인천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2018.

이처럼 동섭과 자경은 동일한 계급적 기반 위에서 자라 왔지만, 사회를 보는 의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결혼을 약속한 둘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다르다. 자경에게 동섭은 그저 사랑의 대상이지만, 동섭에게 자경은 번민의 이유가 된다. 동섭은 자경을 보며, "양심이냐 행복이냐? 민중이냐 사랑이냐?"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때 '양심'과 '민중'은 사회주의라는 사상 혹은 근대적 지식을 갖춘 성스러운 남성의 세계를 뜻하며, '행복'과 '사랑'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대의보다는 사적 감정만을 소비하는 속된 여성의 타락한 사회를 뜻한다.

한나 아렌트는 공과 사의 경계를 긋고 공적으로 살아가는 일의 중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폴리스(공공성)와 오이코스(가정)를 구별하기 때문에 '정치적 동물'일 수 있겠지만, 근대에는 '생명유지' 즉 먹고 사는 것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이러한 구별이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란 공공 영역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24] 공과 사에 관한 이와 같은 도식 속에서 전자는 남성과 주인의 영역이며, 후자는 여성과 노예의 영역을 뜻해왔다는 것은 유명하다. 따라서 동섭의 눈에 자경은 '인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틀어박힌 존재일 뿐이고, 그런 자경에 대한 감정 때문에 자신의 대의가 희생될 수 있는 위험을 항시 경계하는 자로 표상되고 있다. 작품 내내 동섭은 실로 망설이는 자로, 자경은 결단하는 자로 그려지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이 엇갈림이 중요하다. 사회적 사명과 공적 대의를 강조하는 동섭의 소극적 태도와 속된 여성인 자경의 활기는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가? 정치적 동물로서의 동섭은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천박한 자경은 세상을 마음껏 이동하고 활보하는가? 우선, 동섭은 자기 망설임의 윤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한다.

> 자경 씨 인간사회에도 저 월식 상태가 있다우. 어떤 존재 때문에 일생을 흑암에서 울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요. 어떤 양심 없는 일부분 사람들 때문에. 사회에는 월식의 현상이 끊이지 않는 것을 아십니까? (…)

24 한나 아렌트,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9.

> 자경!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별장에서 사려고 저 숫한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구려. 내가 대학을 마칠 동안 수없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쫓겨나오는구려. 자경이 피아노를 둘씩이나 가지게 되는 때문에 젖먹이는 어머니가 주리고 장정이 약을 얻지 못하는구려.[25]

자경이 '화려한 별장'에서 '피아노'를 둘씩이나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흑암에서 울다가 가는 사람들", '젖먹이를 위해 굶는 어머니'와 '아픈 장정이 약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며, 자신이 대학을 마칠 동안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어 쫓겨 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화려한 삶은 또 다른 누군가의 노동에 근거해 있다는 것, 자신의 삶이 타인의 죽음에 빚지고 있다는 성찰이 동섭의 사유로부터 출현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계급 모순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동섭은 "그럼 어떡하면 좋아요?"라고 묻는 자경에게 쉽게 답을 하지 못한다. "글쎄, 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구려..."라며 망설이는 동섭은 세계를 살피는 자기 관점에 대한 확신 속에서도 능동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는 인물로 표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섭은 자경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못한다.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는 지성이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무지란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지식의 포화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이는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내면을 응시함으로써 자신의 지적인 틀 자체를 그때마다 다시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6] 동혁은 자기의 사상과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세계를 마주하면서도 끊임없이 행위하기를 멈추는데, 이때의 망설임은 지식의 포화로 자기가 미처 인지조차 못했던 다른 세계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세계라는 것은 자경 혹은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적 감정에 침윤된 타락한 존재와 장소를 의미하는데, 기실 그러한 세계가

25 김말봉,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1-밀림(상)』, 소명출판, 2014, 85쪽.
26 우치다 다쓰루, 김경원 역, 『반지성주의를 말하다』, 이마, 2016, 15쪽.

자기의 마음속에도 강렬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자경에 대한 사랑을 물리칠 수도, 따를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 속에서 동섭은 방황할 뿐이다.

그런데 김말봉은 동섭의 이러한 방황 혹은 갈등의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로 나아간다. 자경에게 화려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러한 부와 계급적 기반이 사실 동섭 자신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며, 사회주의라는 사상의 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집안의 막대한 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모순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밀림』은 성스러운 남성과 속된 여성의 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대한 자각의 연속으로 서사가 추동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작품에서는 인천이라는 동일한 공간으로의 이동을 남/여의 대비 속에서 포착하고 있었다. 이때 여성의 이동은 남성 지식인/주의자와 대조되며, 철저하게 세속화된 또는 자본주의의 상징으로써의 여행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별장에서의 관광'이나 '백화점 쇼핑', '스케이트'나 '수영'과 같은 레저 활동과 더불어 그러한 이동의 수단 역시 '자가용/자동차'와 '운전수'로 대표되는 근대적 문물이며, 이러한 모빌리티 수단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자경으로 표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정적인 동섭은 사회운동으로 감옥에 갇혀 사상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문을 견뎌내는데, 그 힘의 대부분은 자경에 대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섭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수록 자경은 (위에서 언급한) 소위 세속화된 이동이라 칭할 만한, 자본주의적 향락에 더욱 몸을 내맡기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섭의 사상과 자경의 소비는 집안의 부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집안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동섭과 자경의 아버지는 식민지기 소설에서 자본가가 표상되는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성물산 주식회사"의 사장은 가족들만 살뜰히 챙기고 자기 회사에 속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파업 노동자를 어떻게 회피하거나 회유할지만 궁리하는 자본가-사장의 전형적 인물로 묘사되는 아버지는 남다른 사업수완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뿐만 아니라, 『밀림』에서는 상류계층의 속물성과 허위의식도 잘 묘사되어 있는데, 특히 이 작품의 악역(?)을 맡고 있

는 상만이라는 인물은 성공을 위해 타락해 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자경을 노리고 회사 주변을 얼쩡대던 그는 "파업 노동자를 때려주었다"는 구실을 삼아 비서로 고용된다. 상만의 이러한 점진적 타락 역시 세속적 여성들과의 관계 재편을 통해 심화되어 간다는 특징이 있다.

동섭의 사상과 자경의 소비, 상만의 타락을 추동하는 기제로써 존재하는 돈은 자본가의 이동을 통해 획득되고, 작품에서는 남성=자본가의 이동이 부의 축적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잦은 '출장'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동섭의 수동성은 자신의 사상조차 자본가의 재산과 돈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의 근원적 구성 원리라 할 수 있는 '돈'과 '성(性)'이 통속소설의 서사를 추동하고 있다는 상식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말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즉『밀림』에서는 바로 그 자본가-사장의 축적된 재산조차 피식민자의 경제일 뿐이라는 사실에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 "팔백 원 들어있는 지갑을 잃었다는데 미안한 일이지만 혐의가 당신네 두 분에게 가게 됐습니다."
>
> 사장은 두 눈을 부릅뜨더니
>
> "뭐야 어째서 그랬다는 거야. 어째서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우리 두 사람이라는 거야. 좋다 조사해 보래라. 만약 우리 두 사람에게서 돈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도 상당한 각오가 있다고 말하게나."
>
> 상만은 또다시 통역을 하였건만 형사들은 못 들은 척하고 가방만 뒤지고 있다.[27]

피식민자로서의 조선인 자본가, 그의 축적된 재산조차 식민지 상황에서는 민족적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회피하기 위해 급히 떠난 일본 출장길, 부산 '잔교'에서 탄 연락선의 일등석으로 입장하는 조선인들이 내지인의 눈에는 천박하기만 하다. "센징 꼴에 건방지게" 차려입은 양복, "인삼

27 김말봉, 앞의 책, 301쪽.

팔러 다니는 것?"인가, "광산 브로커"인가? "어떻게든 일본 내지에는 센징을 못 들어오도록 해야한다"는 눈총을 받을 때쯤, 한 일본인 노파와 아이가 지갑이 없어졌다고 호들갑을 떤다. 시선은 모두 조선인을 향하고, 선내 형사는 인용문처럼 자경의 부친과 상만을 의심한다. "목구멍에서 더운 피가 주르르 솟아날 듯한 분노"를 억지로 참고 '몸수색'을 당한 이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센징은 대개 도벽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처럼 조선인 '자본가의 부'조차 일본 내지인들에게는 천박함의 상징일 뿐이다. 피식민자의 상류 의식은 민족적 편견 속에서 무의미한 허위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의미하고 허위적인 돈을 토대로 조선인들의 생활이 차별적으로 틀 지워진다. 『밀림』은 자경으로 표상되는 세속화된 여성의 이동과 동섭으로 대변되는 남성의 공적·정치적 활동의 대비 속에서 서사적인 긴장을 추동하고 있지만, '소비'와 '사상'이라는 불공정한 모빌리티 젠더 인식이 기실 피식민자의 경제라는 허위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소비와 남성의 사상은 허위의식의 두 식민주의적 판본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말봉의 통속은 피식민자로서는 불가피하게 결박되어 있는 세속적 위치와 호응하는 문예 형식을 고안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조선인의 여성화이자, 젠더화라고 칭할 수도 있겠다.

앞서 김말봉이 "조선 남성은 약하다"라고 주장한 배경에는 민족과 계급, 젠더 의식 간의 모순적 교차에 대한 적확한 현실 판단이 있는 것이다. 계급과 젠더 간의 긴장과 알력을 다루면서도 일본과 조선의 민족적 차이에 대해 동시에 천착했다는 것은 서구 페미니즘 운동에 인종차별 문제가 제기된 맥락을 방불케 할 만한 급진적 사상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 운동가 벨 훅스에 따르면,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경제적인 권력을 소유해야만 지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백인 남성만을 적으로 고정"해 온 역사를 비판하면서, "흑인 남성이 인종주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흑인 여성을 성차별하는 가해자"[28]도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백인 여성이 흑인 여성을 미국 여성에 포함하지 않는듯한 관점으로 페미니즘 책을 쓰거나 흑인 여성 차별에 공모할

28 벨 훅스, 노지양 역, 『난 여자가 아닙니까?』, 동녘, 2023, 151-152쪽.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논의의 구도에서 인종 문제를 민족 개념으로 옮겨 놓으면 피식민자 여성의 처지가 보일 것이다. 이는 유비적 관계에 근거한 이론적 추론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제국 일본은 조선에 대해 항시 내지의 연장이자, 일본의 한 지방이라는 통치 전략을 내세웠다. 즉 일본과 조선의 민족적 차이는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와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식민 조선 여성의 이동을 세속적으로 묘사하거나 파악해 온 피식민 남성들은 그들 자신조차 제국주의적 가부장제의 희생자이며, 자신들의 부권적 지위가 식민주의에 의해 언제나 젠더화될 수 있는 곤경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철저히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의 이동을 향락과 소비의 관점으로만 살피는 것은 계급적이면서도 젠더적인 허위의식의 표현이자, 속된 존재로 강제되고 있던 피식민자라는 자기 인식도 부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김말봉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 남성 사회의 무지와 허위의식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의 방향 전환의 동기는 그 글발에 쓴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
> "나는 나의 몸이라든가 내 생명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조창수 내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 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까닭입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여 보겠다는 그 일은 너무 크고 거기 비하여 내 힘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29]

> '조선아 그러면 너도 수전노이냐 과연 너는 그토록 인색하냐. 도망간 딸이 시체가 되어 올지라도 그 귀에 달린 보석 귀고리만 성하여 돌아오라고 부르짖은 샤일록처럼 과연 너는 돈만 아느냐? …… 아니다 아니다. 너는 너의 역사가에는 금전의 가치를 초월한 모든 선과 덕이 얼마나 많으냐. 네가 형제를 죽여 네가 아비를 몰라? 네가 자식을 팔아? (…) 어찌하랴 조선아 너는 확실히 병적이다.'[30]

29 김말봉, 앞의 책, 466-467쪽.

30 김말봉, 앞의 책, 474-475쪽.

조창수는 사회주의 운동의 제일선에서 활약한 인물이며, 동섭에게는 추종의 대상이기도 하다. 동섭은 조창수의 러시아 망명을 돕다가, 사상범 도피 협력이라는 죄명으로 수감 된다. 모진 고문과 핍박을 견뎌 내던 중, 또 다른 동지 영수의 배신으로 창수가 검거되고, 이내 창수조차 전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자신이 믿고 동경해 마지않던 동지들의 변절에 동섭은 좌절하고 만다. '보석 귀걸이'만을 추종하는 '수전노'가 된 조선, 이미 영수의 배신에 조선인이란 "할 수 없는 족속"이며, "저주받은 종자"라고 분개했던 동섭으로서는 창수의 전향은 거대한 상실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진선영에 따르면, 『밀림』은 결국 "창수로 대변되는 주의자(=사상) 세계의 허위성"과 "상만으로 대변되는 통속적 세계의 이면"을 모두 폭로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의 욕망을 그린 작품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즉 "사상과 통속에 대한 이분법적 분류도 인간의 동일한 측면, 비슷한 성질을 극단적으로 양극화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31]이다.

하지만 사상과 통속의 사이(間)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동섭 자신조차 사실상 '주의자'는 아니라는 것, 즉 일종의 '주의자' 비슷한 '포즈'로써 '진짜' '주의자' 친구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투옥까지 되지만,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자경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짚어져야 한다. "자경이란 환영"은 동섭에게 현실 타협에의 유혹이자, 수치심과 모욕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 힘'이 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식민지기 남성의 사상과 통속 모두 세속화된 여성의 존재를 통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한편으로 여성이 세속적 위치에 머무는 한에서만 남성의 활동공간이 구성 가능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밀림』의 동섭(사상)과 상만(통속) 모두 자유분방한 자경을 정복함으로써 그녀를 가정이라는 세속적인(=오이코스) 영역에 결박하려 한다. 자경의 이동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든 남성적 질서와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핀 대로) 피식민자 남성의 무지는 자신들조차 제국의 시선에서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여성의 이동을 세속화하여 파악하는 성스러운 남성의 권위조차 식민주의적인 가상에 불과하다. 김말봉의 통속소설은 제국주의적 가부장제를 내면화한 남성 사회의 질서가

31 진선영, 「김말봉 『밀림』의 역설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44집, 이화어문학회, 2018, 258쪽.

계급의식과 젠더 범주 간의 긴장만이 아니라, 민족 문제와 상호 교차하며 형성된 허위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성 이동의 세속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었다. 이 문제는 그녀의 또 다른 장편소설인 『찔레꽃』에서 식민도시의 형성이라는 문제로 나아간다.

3 식민도시의 형성과 교란, 결박된 여성의 이동과 야만의 역설

김말봉은 『삼천리』에서 마련한 「장편작가회의」라는 좌담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광수와 염상섭, 박영희, 한용운, 이태준, 박종화, 장혁주, 한설야라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남성 소설가들 사이에 김말봉은 여성 작가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대담의 주제는 "조선 작가는 작품 제작에 있어 어떠한 시대와 세상에 치중해야 하는가"와 "신문소설에 있어 예술성과 통속성 혹은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조화에 대한 고심"이었다. 임화의 논의처럼 신문이 기업화의 길을 걷고, 저널리즘이 계몽성보다는 상업성에 치중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신문연재소설에 있어 통속성 논란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장편소설로서는 "발표기관의 상업성과 타협하느냐 그것과 깨끗이 분리하느냐"하는 국면에 있었지만, "조선문화계의 사정이란 게 신문을 떠나 독보할 수 없으므로 상업성과 타협해가는 절충의 방도"[32]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말봉은 현실과 타협한 예술소설가가 아니라 純통속작가로서의 입지가 남달랐던 만큼, 이 좌담회의 참여는 세간의 주목을 요했다.

김말봉은 예술성과 통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예술성과 통속성의 조화에 관해서는 한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신문소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연히 흥미 본위로 지루하지 않게 하는 생각"을 갖고, "순수소설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문연재소설의 통속성에 관한 임화의 논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답변이다. 그런데 여기에 작품 제작에 있어 어떠한 시대와 세상에 대해 치중했는지에 대한 답을 덧붙여 볼 필요가 있다. 김말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32 임화, 「속문학의 대두와 예술문학의 비극(三)」, 『동아일보』, 1938. 11. 22.

> 도시 중심으로 써갑니다. 과거보다도 현대의 세상을 그려보고 따라서 장차 올 사회에 어떤 암시가 되도록 썼으면 하는 것이 나의 야심이올시다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함니다. 朝鮮 작가는 그 취재가 과거와 현대를 불문하고 그것이 지금보다 나흔 사회를 유도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올켔다고 신념하옵니다.[33]

인용한 대로, 김말봉은 오늘날의 장편은 '도시 중심'의 '현대 세상'을 그리되, 사회의 미래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 작가라면 그 취재를 불문하고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유도하기 위한 신념을 바탕으로 창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조선의 미래를 보다 나은 사회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통속이라는 것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순수문학의 궤도에서 벗어난 통속성이 단순히 대중의 흥미에 영합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의 미래에 암시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도시 중심의 현대 세상을 담은 통속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현대의 도시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물류와 물자는 물론, 인간조차 돈을 매개로 교환되는 시공간을 의미한다. 도시는 이동과 정주의 교차 속에서 구성된다. 도로와 철도, 항구와 공항의 합류 지점이며, 통신과 정보, 하수와 상수, 전기와 기계, 상품과 사상이 상호 교차하는 흐름 그 자체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마르크스의 교통론을 세밀히 살피며 교환양식으로 세계를 파악한 바 있다. 즉 교통이란 교환양식과 다름없다는 것인데, 이는 도시와 정주에 관한 전혀 다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서구의 역사관에서 인류는 농업을 위해 정주했으며, 정주에 의한 농업혁명으로 도시가 탄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진은 정반대의 입장을 제시한다. 농업은 原도시에서 시작되었으며, 정주하면서 농업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농업이 발전하여 도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은 공동체와 공동체, 개인과 개인, 정보와 기술 등이 교통=교환하는 장(field)으로서의 原도시에 의해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에서의 정주는 비축을 초래하고 그것은 다시 불평등이나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한다.[34] 어쩌면 도시의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는 안으로부터 다시 유

33 김말봉·이광수·엽상섭 외, 「장편작가회의」, 『삼천리』 제8권 11호, 1936. 11.

동=이동해야 할 것이다.

김말봉은 자신은 "예술가가 아니라 단지 가난한 한 여인"[35]이라 언급한 바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결박된 채, 도시라는 교통 공간을 배회해야 하는 여성의 삶과 시선으로부터 현대 사회의 병폐를 초월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미래가 암시될 수 있다는 신념을 서사화한 장르로써 김말봉의 통속소설론이 정립되었다. 『찔레꽃』은 그 가능성을 담고 있는 장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말봉의 『찔레꽃』(『조선일보』1937.3.31.-10.3.)[36]은 가족부양을 위해 가정교사가 된 여인의 굴곡진 사연을 담은 작품이다. 주인공 정순은 "종로 이정목 전차 안전지대에서 서대문행 전차"(9쪽)를 기다리고 있다. 밥 한 끼를 못 먹고 '본정통'과 '황금정'을 거쳐 '동대문'을 떠돈 것은 다름 아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정순은 가족들의 끼니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XX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원비가 급했다. 신문 구인란을 좇아 '한강행'과 '서대문행'을 바꿔타며 경성 시내를 이동 중인 정순은 전차에서 "X화여학교 교장"인 김부인을 우연히 만나고, 그녀의 알선으로 "XX은행" 두취(頭取) 조만호 집의 가정교사가 된다.

1930년대 대중소설에서의 가정교사 재현을 다룬 허예슬은 『찔레꽃』의 정순이 '교과'가 아니라, '보육'을 담당했다는 사실에 천착한 바 있다. 즉 정순은 보육자로 고용되어 노동을 하는 것이지만, 남성들에겐 가장 순결한 형태의 모성애로 읽히면서 이 돌봄의 현장으로부터 성적 매력의 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37] 덧붙이자면, 가정교사의 유급 가사노동(보육과 교육)은 가정의 사회적 의미에만 머물지 않고, 집을 사적인 것 또는 가족적인 것과 연관지어 온 사고를 교란시키는 수행적 행위가 된다. 다시 말해, 여성들 사이의 분할을 만들어 내는 계급적 위치를 공/사에 관한 관습적인 구분과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젠더 범주를 교차하

34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제국의 구조』, 도서출판b, 2016, 71쪽.

35 김말봉, 「愛讀者에게 보내는 作家의 便紙」, 『삼천리』 제7권 10호, 1935. 11.

36 여기서는 다음에서 인용한다. 김말봉, 진성영 엮음 『김말봉 전집3-찔레꽃』, 소명출판, 2014. 이하 이 작품에서 인용할 시 본문에 쪽수만을 표기하겠다.

37 허예슬, 「193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 가정교사 재현 문제」, 『반교어문연구』 제56집, 반교어문학회, 2020, 212-213쪽.

게 만드는 기제로써 작동한다는 것이다. 린다 맥도웰은 "육아/보육을 활동으로 구조화하는 젠더, 사랑, 돌봄에 관한 가정들이 육아를 직접적인 임금 관계라기보다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임무로 구성하게 만들며, 그들이 '가짜친족(false kinship)'이라고 부르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토대"[38]라고 논의한 바 있다. 가정 내 타자로부터 생산된 그림자 노동이 바깥일을 하는 남성이 아닌 계급적 위치가 다른 여성의 역할을 대리 수행함으로써, 유사-아내로 상상되는 국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가정교사는 단순히 섹슈얼한 대상으로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과 가정과 여성의 관계를 뒤흔드는 반-사회적 존재로 부상하게 된다.

실제 작중 정순이 남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버지(=부권적 권위)가 정신병원에 유폐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속적인 오이코스의 영역에 '발목 잡혀있는 여성'이 남성을 대신하며 가족부양을 위해 남의 가정으로 '이동'하고, '유사-아내'로 고용되어 '진짜 아내'처럼 사회적 재생산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정교사의 재생산 노동은 돌봄 노동이면서도 심각한 감정노동이기도 하다. 일반적 의미의 감정노동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자신의 감정을 고무시키거나 억제하게 한다"[39]면, 남의 집 남성들로부터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있는 정순의 감정은 남성들의 애욕을 그저 소비하게 하는 창구의 역할 만을 하기 때문이다. 『찔레꽃』에서 그려지고 있는 가정교사라는 직분의 문제성은 여성과 가정(정주), 남성과 노동(이동)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교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교란을 민족적이면서도 계급적이고, 젠더적으로 교차 구획한 공간이 바로 식

38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2010. 152쪽.

39 참고로 앨리 러셀 혹실드는 감정을 매개로 한 노동분업과 젠더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는 노동 분업 때문에, 어느 직업에서든 여성은 남성에 견줘 낮은 지위와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감정 원칙'에 대항할 보호막을 얻지 못한다. 여성들은 남성에 견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울 것 없이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고객 불만 접수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앨리 러셀 혹실드, 이가람 역, 『감정노동-노동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가』, 이매진, 2009, 229쪽.

민도시 경성의 공간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정순이 남의 집 가정교사로 일하러 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약혼자 민수는 자신과 그녀의 거리를 도시 공간 사이의 물리적 거리로 표상·인식하고 있다. "부르주아 가정이란 밖으로 보는 것과는 아주 딴판으로 불순한 점"(19쪽)이 많기에, 정순이를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이 환기된 것이다. 정순도 "천리 길이나 떠나는 길손"처럼 전차에서 숨이 막혀 오는데, "같은 경성 안에서도 하나는 인사정에 하나는 효자정"에 있다는 그 간격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다,(22쪽) 『찔레꽃』은 "으리으리하게 큰 솟을대문"이 즐비한 인사정과 "썩을대로 썩은" 효자정 사이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간극이 젠더적이고 계급적인 이동의 격차와 그 횡단 속에서 공간적으로 구획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식민도시의 초상을 담은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만호의 집에는 정순과 비슷한 또래의 인텔리 여성이 살고 있다. 조만호의 딸인 경애는 동경미술학교 출신의 화가이면서 남성과의 교제나 연애에 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독립적인 신여성이기도 하다. 경애는 정순이 가정교사로 고용되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남다른 호기심을 갖고 자매애를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정순과 경애는 너무 다른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 둘의 차이는 세대나 교육의 차이가 아니라 오로지 계급적인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정순과 경애 간의 계급 격차를 '모빌리티 불평등'으로 재현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류층 저택에 틀어박혀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순은 경애와 동행하지 않으면 집 안팎을 쉽게 드나들 수 없다. 자신의 본가조차 유사/의사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고용인들의 허락과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것이다. 반면, 경애의 분방한 기질은 그녀가 누리는 '이동의 자유'를 통해 현상한다. '미스코시 백화점'과 '화신백화점'에서의 쇼윈도 쇼핑, 카페와 레스토랑에서의 호화스러운 식사, 네온사인 빛나는 아스팔트 거리의 활보 등 경성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부르주아적 향유를 통해 경애의 활기가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정순으로 대표되는 하위계급과 경애로 대변되는 상류계층은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다르다. 정순과 민수는 주로 걷거나 전차를 타지만, 경애와 조만호는 기사가 딸린 자가용을 탄다. 근대사회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자동차

소비는 계급성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일련의 개인적·사회적 실천들과 강하게 결합된 운전 행위에 대한 미적·정서적·감각적인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동차 도로와 보행자 길의 구분, 그 사이를 횡단하는 전차와 사각의 안전지대, 도로 정비와 교통법규의 확립, 도시와 도시 혹은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구축과 거리감에 관한 인지 격차, 대중교통의 설비 등 위로부터 파급하는 기술적 모빌리티의 출현을 상징하며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등장은 정치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신체적·지역적·세계적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모빌리티의 광범위한 양상"[40]은 사회적으로 협의되고 조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식민도시 경성에서 자동차는 왕실과 총독부에 관용으로 들어온 이래, 고급 군인이나 외교관, 선교사, 구(舊)왕실, 그리고 윤택영, 이완용, 박영효 등 친일 귀족을 중심으로 늘어갔다. 그럼에도 식민지 조선의 자동차 보급률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데, 제국 일본이 자동차의 수를 군사기밀로 다루었기 때문이라 전해진다. 반면, '경성 시민의 발'이었던 전차는 꾸준히 보급량을 늘려 1935년 기준 객차는 154대에 이르렀고, 이용객은 하루 15만 명에 육박했다고 조사된다.[41] 전차와 자가용은 모빌리티의 사회적 격차를 상징하고, 도시는 그러한 격차 속에서 구획되고 있는 인공적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실상) 남의 집에 결박되어 있는 정순이 경애와 동행함으로써만 저택의 바깥으로 나설 수 있다는 설정, 더불어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차이 그 자체는 도시를 활보할 수 있는 자유에도 편차가 있다는 모빌리티 격차에 대한 상징이다. 또한 이는 이동의 수단과 권리가 어떻게 계급적인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사적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남의 '가정'에 결박된 주인공을 내세운 『찔레꽃』이 모빌리티의 격차를 통해 구획·설비되어 있는 도시와 도시적 삶의 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설은 그렇게 가능하다. 한편으로 이는 근대의 사회변동이 바로 사회의 급격한 내적 분화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마이클 크로닌

40 미미 셸러, 최영석 역, 앞의 책, 198쪽.

41 식민지기 경성의 교통수단에 관한 통계와 지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영근, 「일제하 서울의 근대적 교통수단」, 『한국학보』 제26권, 일지사, 2000.

은 “외국적이고 이국적이며 타자적인 것”들은 “국경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지방 너머, 거리 너머, 혹은 같은 사무실 안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정 장소에 거주하면서도 그 장소를 횡단하며, 그로부터 불균등한 공간 구획의 내부적 지식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 크로닌은 “내지여행적 관점”의 확보를 강조한다. 동일 공간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타자라는 복잡한 존재와 관계하는 운동 속에서 일정 정도 공유된 감각을 드러낼 수 있는 형식 창조의 지속적 과정”[42]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찔레꽃』은 정순과 경애의 모빌리티 격차 속에서 식민도시 경성이 계급적이면서도 민족적이고 젠더적인, 그러니까 이들을 상호 교차하면서 형성된 타자의 타자성이 어떻게 동일 공간 내부에서의 갈등과 접목/접촉으로 구획된 결과로써 지각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김말봉의 통속소설의 문제성은 모빌리티 격차의 양상을 현실보다 더 현실 교란적으로 밀고 나아간다는 사실에 있다.

(1) 투드락 탁탁! 투드락 탁탁! 말밥굽 소리는 요란하건만 앞서 가는 경애의 말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영환은 초조하여졌다. 태평통을 지나 남대문이 가까워지자 교통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 수레와 사람들 때문에 영환은 말고삐를 약간 늦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포켓에서 손수건을 꺼내 흘러내리는 이마의 땀을 씻었으나 영환은 허리가 부러질 듯이 아파오고 대퇴의 감각은 거의 없어진 듯 여러 날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나와 그의 포류질인 몸을 집어삼키는 듯하였다. 내리쪼이는 햇살의 뜨거움은 말 위에서 받는 바람과는 아무래도 상살이 되지 안는 모양이다. 그는 바른대로 하면 이 길로 택시를 불러 타고 자기 집 서늘한 등의자로 가서 비스듬히 기대어 쉬고 싶었다.(188쪽)

(2) 폭양에 작열되어 있는 레일이 성난 뱀 같이 길게 누워 잇는 위로 미친 말은 경애를 싣고 함부로 뛰어가는 것이다. 아아 저편에서 들려오는 기적소리! 방금 식은 연기를 뿜으며 헐떡이고 올라오는 기차는 아침에

42 마이클 크로닌, 이효석 역, 『팽창하는 세계』, 현암사, 2013, 72쪽.

부산서 떠난 노조미가 아니냐. 경애를 향하여 달려오는 기차, 기차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 경애는 절체절명으로 말고삐를 틀려하였으나 말은 여전히 굴르 듯 선로 위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195쪽)

(1) 경애는 말에 올라타 자신을 사모하는 '샌님' 영환을 골려주기 위해 '태평통'을 지나 '남대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교통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 수레와 사람들" 사이에서 영환은 도대체 따라잡을 수 없는 경애를 멀리 두고 말의 속력을 조절하며 '현기증'을 느낀다. 식민도시 경성 한복판에서 말을 타고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여성 주체의 등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앞서 언급한 대로, 운전기사를 대동한 자가용은 상류계층의 모빌리티 수단으로 식민지 조선에서도 아주 희소한 '탈 것'이었다. 그런데 경애는 그 수준을 넘어서 있다. 자가용과 전차, 인력거와 자전거가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사이(間) 공간을 누비며, 말을 타고 도시를 활보하는 여성 경애의 모습은 단순히 상류계층의 문화적 향유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승마는 최상위층의 취미이기도 하다. 다만, 승마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대적 레저이자 스포츠로서만 그렇다.[43]

경애의 속도를 뒤쫓던 영환은 "허리가 부러질 듯 아파 오고 대퇴의 감각은 거의 없어진 듯"한 '피로'를 느낀다. '택시'라도 잡아타 이 상황을 회피하고만 싶다. 그러던 중 패검(佩劍)한 순사의 호령 소리("おい!")를 듣는다. '교본소(交番所)'까지 가자는 순사는 영환에게 "풍속 문란"의 죄를 묻는다. "어떤 점에서 풍속 문란이란 말입니까?", 이에 순사는 "백주대낮에 여자와 함께 말 위에서 눈짓 손

43 승마는 처음에는 군대의 훈련 교습 형태로 있었다고 한다. 1896년 친위 기병대가 창설되고, 1901년 4월 무관학교에서 기병의 훈련 교습이 시작되면서 승마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후, 1930년대에 이르면 서울에 처음으로 승마 구락부가 설립되고, 개량마 10여 필을 가지고 승마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회원 대부분은 일본인이었다고 한다. 1930년 용산 연병장에서는 제1회 전 조선 승마대회가 개최된 바 있고, 1934년에는 서울 운동장 후면에 서울 승마 구락부가 설립되어 승마인 양성에 힘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5년에는 전 조선 승마 대회에서 민병선과 권태갑이 최초로 일본인을 물리치고 승마계의 패권을 잡기도 했다고 한다. 근대 스포츠로서의 승마가 식민지 조선에 자리 잡게 된 과정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박선희, 「『찔레꽃』에 나타난 스포츠와 연애」, 『우리말글』 제59집, 우리말글학회, 2013, 348쪽.

짓”을 한 죄를 지목하고, “더구나 착잡한 교차점 부근”에서 “위험”스럽게 내달려서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간 여성은 분명 곡마단 소속인듯싶은데 거리는 직업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를 댄다. 이처럼 경성 복판에서 말을 타는 여성은 ‘곡마단’이 아니면, 아예 상상조차 불가능한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일제의 말단 경찰인 순사의 눈에 경애는 도시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다분히 위험하고 풍속을 문란하게 만드는 ‘규격 외 존재’인 것이다. 영환이 호소하는 ‘피로’와 ‘현기증’ 역시 경애라는 인지 불가능한 여성 주체의 자유와 속도에 대한 공포의 심리적 표출에 불과하다. 식민도시의 질서를 교란하는 여성의 출현은 근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는 파악 불가능한 괴물의 탄생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작품에서 괴물이란 상황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2) 경애를 태우고 질주하던 말은 결국 미쳐버린다. 모빌리티 수단이 여성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철교” 옆 ‘인도교’를 통과하던 말이 “웬일인지 우뚝 서서 푸르르 하고 코를 불더니 꺼덕 앞발을 치켜들고 두어 번 겅중겅중” 뛰기 시작한다. 수백 명의 인파가 경애와 미친 말에 감히 다가갈 수조차 없다. 난장판이 된 도시와 경애의 사투. 이는 여성의 자유로운 이동이 문명론의 관점에서는 결코 수용될 수 없다는 사실의 리얼한 재현이라 할 수 있다. 도시를 광폭하게 횡단하는 여성은 야만(혹은 괴물)에 불과한 것이다. 미친 말은 “성난 뱀 같이 길게 누워 있는” 레일 위로 뛰고, 반대편에서는 “식은 연기를 뿜으며 헐떡이고 올라오는 기차”가 달려오고 있다. “경애를 향하여 달려오는 기차”와 “기차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의 임박한 충돌. 익히 알려진 바대로, 기차는 근대성 그 자체를 상징해 왔으며, 철도는 식민 지배를 위해 계획적으로 설비된 모빌리티 기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장면은 식민 지배와 근대성의 상징인 기차를 정면에서 부딪혀오는/대항하는 여성성이라는 괴물의 출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식민도시 경성은 교통과 주택은 물론, 상업과 금융, 취미와 예술, 통신과 정보, 인구 등의 계획된 분점을 통해 제국의 통치와 관리를 유용하게 하는 중심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찔레꽃』은 바로 그 도시의 질서를 교란하는 여성 주체의 출현을 ‘미친 말’이라는 괴물＝야만으로써 표상하고, 이 다스릴 수 없는 여성 이동의 자유와 속도가 식민지 근대성을 내부로부터 교란할 수 있다는 위기로부터 서사적 긴장을 추동해 나가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경애는 결국 민수라는 또 다른 남성 주체에 의해 구조되어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 김말봉의 통속은 근대성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완전히 반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계획된 질서 공간의 틈을 자유롭게 이동/횡단하는 여성이라는 야만의 출현은 계급과 젠더, 민족 범주 간의 긴장과 알력 속에서 식민도시의 모순이 언제든 표출될 수 있다는 저항의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내장한 미학적 표지 그 자체일 수 있다. 세속화된 여성 이동의 성취는 암시된 탈식민주의적 정치성에 있지 않을까 한다.

4 결론을 대신하며-이동과 정주의 젠더 교차

식민지기 여성의 이동과 글쓰기라는 행위의 상호 관련성은 여성의 근대적 경험의 문자화 과정에서 중요한 현상 중 하나였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주요 매체에서 여성 지식인들의 국내외 기행문 및 여행·이동 관련 서사들이 그 양에 있어서나 사회적 요구에 있어서 이례적일 정도의 주목과 분포 및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는 여성이라는 규범적·구성적 범주가 '이동'이라는 세계에의 젠더적 경험을 매개로 수행적으로 정립되거나 반립되고 있었다는 현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졌듯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뿐 아니라, 대중종합지로서의 성격을 지닌 『별건곤』, 『삼천리』는 물론, 『신여성』, 『신가정』, 『여성』 등과 같이 여성잡지를 표방하거나 여성 주체를 호명하고 있는 잡지에서 세계에 대한 여성적 체험이 담긴 이동 서사의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이는 가정, 지역, 사회, 국가라는 틀에 강하게 주박되어 있던 전근대 여성 경험의 세계가 근대 이후 문명화 과정을 통해 개방되면서 여성 또한 근대적 주체로서 사회에 존재하거나 기입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3·1운동 이후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여성 교육(의 가능성)이 증가했고, 발달한 교통, 인쇄매체에 의해 고조된 독서열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어떻게 재구성됐는지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동 경험의 증가나 그에 기반한 여성 이동 서사의 탄생은 여성들의 주체적 행위의 결과였으며, 남성들에게조차 일종의 이채로운 독물이자 읽을거리로써 여성의 이동을 반복적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범주의 구성에 관한 전 사회적인 요청이기도 했다. 그만큼 식민지 근대 여성의 글쓰기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여성들의 이동이 함의하고 있는 다층적 성격은 여성이라는 존재와 범주의 근대적 입지 및 문화전략의 상보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조선의 여성들은 이동의 자유와 권리가 여성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입지를 드러내며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해당 시기 조선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성은 특권적 계층에 속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있었고, 바로 그러한 의식을 모빌리티 격차를 통해 표상하려고 했던 일군의 서사화 작업이 수행되었다는 점은 중요하게 고찰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동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성들의 여행이 어떻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포착되고 있었는지를 살피고, 여행이 가능했던 여성들과 불가능했던 남성들간의 관계가 그들의 계층의식과 젠더 범주 간의 마찰을 통해 어떻게 역전 혹은 전치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민지기 여성의 이동이 문화향유의 측면에서 다뤄져 왔던 오랜 관행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의식 속에서 속된 행위로 이미지화되어 있었는지, 또 그렇게 세속화된 여성들의 여행이 남성들의 사회적 권위를 실추시키게 할 시대의 위기로 감지되고 있었던 양상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들의 이동과 여행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위가 낮은 주체들의 이동이 관리되어야 했다. 그런데 1930년대의 조선에서는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특권계층의 문화적 향유가 계급과 젠더, 인종의 지평에서 작동하는 이중성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 이중성이 야기한 심미적 아이러니의 사회적 성격이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에 통속작가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김말봉의 소설을 통해 당대 여성의 이동이 정치화되고 있던 식민주의적 조건을 살피고, 여행이 가능했던 여성의 특권적 위치가 남성적 질서에 어떠한 균열을 일으켰는지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여성 이동의 대표적 형태인 여행이 서사화되면서 인종, 젠더, 계급의 관계가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는 이동의 지형학을 도시 공간의 젠더적 구성과 교차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요컨대, 김말봉은 생계(=오이코스) 영역에 결박된 채 돌봄과 감정 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남의 저택으로 이주한 정순과 식민도시의 균형과 질서를 야만스럽게 교란한 경애 간의 모빌리티 격차를 통해 통속이라는 서사 양식이 함의할 수 있는 정치성의 일단을 실험했다. (『찔레꽃』) 또한 그 실험의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가부장제를 내면화한 남성 사회의 질서가 계급의식과 젠더 범주 간의 긴장만이 아니라, 민족 문제와 상호 교차하며 형성된 허위의식과 다름없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밀림』) 1930년대 여성 이동의 세속적 재현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근대성 자체의 교란 가능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김말봉의 통속소설이 이를 문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말봉, 『김말봉 전집1-밀림(상)』,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4.

_____, 『김말봉 전집3-찔레꽃』,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4.

『동아일보』, 『별건곤』, 『삼천리』, 『신가정』, 『조선일보』, 『조선지광』, 『중앙일보』

단행본

안정윤 외, 『인천 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인천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2018.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제국의 구조』, 도서출판b, 2016, 71쪽.

낸시 프레이저, 장석준 역, 『좌파의 길-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서해문집, 2023, 40-42쪽.

루시앙 골드만,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92, 20쪽.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2010, 152쪽.

마이클 크로닌, 이효석 역, 『팽창하는 세계』, 현암사, 2013, 72쪽.

미미 셸러, 최영석 역, 「자동차 모빌리티와 교통정의를 넘어」, 『모빌리티 정의』,

앨피, 2019, 118쪽; 198쪽.
벨 훅스, 노지양 역, 『난 여자가 아닙니까?』, 동녘, 2023, 151-152쪽.
앨리 러셀 혹실드, 이가람 역, 『감정노동-노동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가』, 이매진, 2009, 229쪽.
우치다 다쓰루, 김경원 역, 『반지성주의를 말하다』, 이마, 2016, 15쪽.
한나 아렌트,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9.

논문
강옥희, 「식민지 시기 대중소설에 반영된 서구문화의 수용 양상-김말봉의 『찔레꽃』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127-156쪽.
김영근, 「일제하 서울의 근대적 교통수단」, 『한국학보』 제26권, 일지사, 2000, 69-103쪽.
박선희,「『찔레꽃』에 나타난 스포츠와 연애」, 『우리말글』 제59집, 우리말글학회, 2013, 331-361쪽.
변하연, 「김말봉 소설 속 '성노동자'들」, 『여성문학연구』 제6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176-208쪽.
배상미,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 『민족문학사연구』 제58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283-312쪽.
서영채, 「19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과 그 의미-김말봉의 『찔레꽃』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 267-288쪽.
서정자,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형의 창조」,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90-230쪽.
_____, 「김말봉의 『밀림』 재론-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72-208쪽.
안서현, 「젠더, 서사, 지도-김말봉의 초기 장편소설에 대한 '지도 그리기'의 시도」,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회, 2023, 107-133쪽.
엄학준, 「김말봉의 『찔레꽃』에 드러난 지식인 노동자의 표상과 그 의미-1930년

대 대중소설의 노동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01집 (27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161-185쪽.
장두영,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9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317-350쪽.
진선영, 「인조견을 두른 모럴리스트-김말봉 대중소설 창작방법론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6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93-221쪽.
_____, 「김말봉 『밀림』의 역설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44집, 2018, 243-260쪽.
허예슬, 「193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 가정교사 재현 문제」, 『반교어어문연구』 제56집, 반교어문학회, 2020, 195-220쪽.

Abstract

Secularization of Women's Movement and Urban Disturbance in Kim Mal-bong's Novel of the 1930s

Sung, hyun-ky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lonialist conditions under which the movement of women at the time is being politicized through Kim Mal-bong's novel, which secured a unique status as a popular writer in the 1930s, and to examine how the privileged position of women who were able to travel caused cracks in the male order. In this process, as travel, a representative form of women's movement, became epic, the topography of movement,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race, gender, and class is newly rearranged, was explored through the gender composition and intersection of urban space. Kim Mal-bong experimented with the politics that the narrative style of popularity can imply through the mobility gap between a governess who moved to another's mansion to engage in caring and emotional labor while bound to the realm of livelihood (=Oikos) and a finite class woman who brutally disrupted the balance and order of colonial cities. In the course of the experiment, he also revealed that the order of male society, which internalized imperial patriarchy, was not only a tension between class consciousness and gender categories, but also a false consciousness formed by intersecting with national issues. This is thought to have led to the exploration of how the long-standing practice of colonial women's movement, which had been dealt with

in terms of cultural enjoyment, was imaged as a vulgar act in public consciousness, and conversely, the travel of such secularized women was perceived as a crisis of the times that would undermine men's social authority. In order for women's movement and travel to be carried out, the movement of low-ranking subjects had to be managed. However, in Joseon in the 1930s, the cultural enjoyment of the privileged class of free movement exposed the duality that worked on the horizon of class, gender, and race. The social character of the aesthetic irony caused by the duality was represented through Kim Mal-bong's novel.

Key words: Kim Mal-bong, women's movement, Mobility, Popular Novel, Colonial City, Gyeongseong, Secularization, 1930s

논문제출 / 2025.03.14.
논문접수 / 2025.03.16.
게재확정 / 2025.04.04.